

<http://work.go.kr/jobcenter>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

취업상담에서 직업능력개발까지
고용센터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자 개인별 맞춤 취업정보 (일자리·직업훈련정보 등)를 제공합니다.
- 직업심리검사로 직업선택과 진로결정을 도와드립니다.
- 취업능력과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행면접과 심층상담을 제공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합니다.

기업을 위한 인재채용서비스

- 기업에 꼭 필요한 맞춤정보 (인재정보·각종 지원금 제도 등)를 제공합니다.
- 모집공고에서 전형·선발까지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맞춤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 각종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고용창출, 고용축진을 지원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490233-000001-06

내일을 위한 JOB CENTER

이공심터 관심

서울청 사업소개 _ 직업심리검사
창업성공 벤치마킹 _ 소규모 자본 창업 '샌드위치 전문점'
테마 직업여행 _ 시대의 건강 지킴이 '운동사'
노동이슈 _ 고령자 고용지원금
서울이야기 _ 걸어서 떠나는 서울여행



2012
February

02

서울 취업허브

이과 심터

http://work.go.kr/seoul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역의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배포합니다.

「일과 심터」 76호 (통권 120호)_2012년 2월호 Vol.120 February 2011

발행일 2012년 2월 1일 발행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발행인 청장 이성기
편집인 서울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주 소 100-760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3층 서울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전 화 02)2004-7322 팩 스 02)6915-4010
디자인 인쇄 (주)BandH 디자인 02)2272-3587

「일과 심터」를 통해 알고 싶은 정보나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역의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배포합니다.
「일과 심터」는 <http://work.go.kr/seoul> 또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춘

- 이해인 -

꽃술이 떨어는
매화의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나의 정원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 있는 모든 것들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CONTENTS

04 ⁺ 맞이하기	너무나도 중요한 처음
06 ⁺ 서울고용노동청 사업소개	직업심리검사
08 ⁺ 서울고용노동청 현장소식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10 ⁺ 전문가 칼럼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
12 ⁺ 창업성공 벤치마킹	소규모 자본 창업 '샌드위치 전문점'
14 ⁺ 테마 직업여행	시대의 건강 지킴이 '운동사'
16 ⁺ 성공사례 엿보기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18 ⁺ 성공취업 속으로	실패를 도전의 기회로 바꾸는 힘 행동하고 도전하라!
22 ⁺ 취업상담 사례	마음 가다듬기
24 ⁺ 노동이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8 ⁺ 서울이야기	걸어서 떠나는 서울여행
30 ⁺ 건강이야기	아기는 통통해도 크면 빠진다?
32 ⁺ 통계로 본 세상	12월의 서울지역 노동시장 동향
36 ⁺ 서울고용노동청 취업캘린더	2월의 취업캘린더
40 ⁺ 서울고용노동청 소식	Photo News
42 ⁺ 퍼즐 아카데미	ANAGRAM

너무나도 중요한 처음

거미가 그물을 만들기 위해선 첫 줄이 가장 중요하다.
첫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미는 첫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 붓는다.
약하다 싶으면 걷어내고 다시 첫 줄을 친다.
또 약하다 싶으면 미련 없이 걷어낸다.

그렇게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하여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일은 모두 어렵고 힘들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포기해선 안 된다.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해야 한다.
일단 처음이 어렵지 그 뒤엔 보다 수월할 것이다.

『사랑밭 새벽편지 중에서』



직업심리검사 | “개인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나 직업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면 나의 적성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막상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들도 이직을 고민하게 될 때 그 동안 한 일이 과연 나에게 맞는 일인지 의문을 갖기도 한다. 직업심리검사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고용센터에 가면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각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검사를 선택해서 특성화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온라인과 지필검사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 검사는 '워크넷(work.go.kr)사이트의 취업상담/지원-직업심리검사'에서 받아 볼 수 있고, 검사 실시 후 바로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다. 지필검사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결과표에 대한 자세한 해석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인 대상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S형 • 직업선호도검사 L형 • 구직준비도검사 •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검사 • 구직욕구진단검사 • 직업가치관검사 •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 IT직무 기본역량검사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이다.

직업선호도검사 S형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수검자가 직업흥미를 진지하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하는 검사이다.

직업선호도검사 L형

성인의 직업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하여 수검자가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제공하는 검사이다.

구직준비도검사

실직하게 된 개인이 실직 후 심리·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재취업의지와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이다.

창업진단검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사업가적 적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떤 업종으로의 창업이 적합한지를 판정해 주는 검사이다.

직업전환검사

직업을 전환하여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현직자 구직자에게 전환 후 적응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을 추천하는 검사이다.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구직욕구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구직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간편형 검사이다.

직업가치관검사

만 15세 이상의 청년층 및 성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을 알아보고 자신의 직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안내해 주는 검사이다.

영업직무 기본역량검사 · IT직무 기본역량검사

영업분야 및 IT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검사로, 적성과 인성역량을 함께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들에 따라 영업 분야 및 IT 분야 직군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해 준다.

준고령자 직업선호도 검사

준·고령자(50대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짧은 72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흥미에 따른 고령자 적합 직업을 제시해주는 검사이다.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 청소년 적성검사(고등학생용) • 청소년 적성검사(중학생용) • 직업가치관검사 •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S형 •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L형 • 대학 전공(학과) 흥미검사 • 초등학교 진로인식검사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적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진로·직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개인의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검사이다.

청소년용 적성검사

여러 직업들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직업적 능력을 측정하여 청소년들의 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해 주는 검사로 고등학생용과 중학생용으로 나뉜다.

직업가치관검사

만 15세 이상의 청년층 및 성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을 알아보고 자신의 직업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안내해주는 심리검사로서 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의 직업가치관에 잘 맞는 직업들은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에 대한 태도와 성향, 진로와 관련된 지식의 정도, 진로행동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검사로 청소년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이다. 전체형과 단축형의 두 가지가 있다.

대학 전공(학과) 흥미검사

자신의 대학 전공(학과)에 대한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전공(학과)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검사로서, 활동선호도/교과명 선호도/직업 선호도 등 3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진로인식검사

초등학교 진로인식검사는 초등학교들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심리검사로서 자기이해, 의사결정성향, 대인관계성향, 직업인식, 직업가치관, 진로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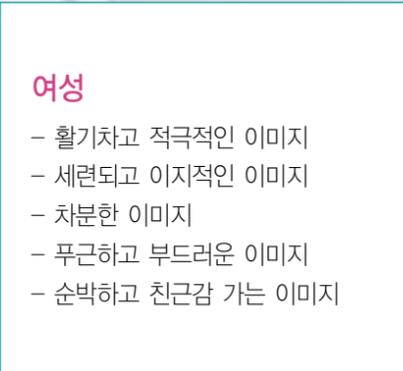
이력서 사진 노하우

기업이 선호하는 이력서 사진



남성

- 활기차고 적극적인 이미지
- 성실하고 우직해 보이는 이미지
- 푸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 세련되고 이지적인 이미지
- 차분한 이미지



여성

- 활기차고 적극적인 이미지
- 세련되고 이지적인 이미지
- 차분한 이미지
- 푸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 순박하고 친근감 가는 이미지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 민간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좋은 일 사진관』 운영 -

임진년 새해의 시작인 1.2(월)~1.4(수) 3일간, 서울고용센터에서는 민간취업지원기관 잡코리아와 함께 센터를 찾는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좋은 일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좋은 일 사진관’은 잡코리아가 좋은 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의 하나로, 이번 행사는 서울고용센터와 잡코리아가 협력하여 고용센터를 찾는 구직자들에게 무료로 이력서 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즉석 인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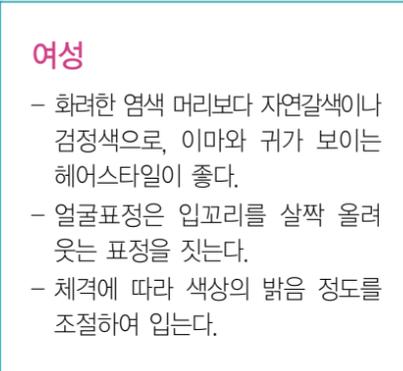
3일간 서울고용센터를 방문한 구직자 중, 약 220여 명이 무료이력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력서 사진을 찍는 요령과 기업이 선호하는 이력서 사진에 대해 설명을 받았다.

이력서 사진찍기 노하우



남성

- 이마를 가리기 보다는 앞머리를 젖등을 이용해 정리하고, 귀가 보이도록 한다.
- 얼굴표정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는 표정을 짓는다.
- 복장은 어두운 색 자켓에 민무늬 흰색셔츠가 좋다. 넥타이는 푸른 색의 스트라이프 무늬



여성

- 화려한 염색 머리보다 자연갈색이나 검정색으로, 이마와 귀가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좋다.
- 얼굴표정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는 표정을 짓는다.
- 체격에 따라 색상의 밝음 정도를 조절하여 입는다.





네바퀴로 가는 자동차

서울북부고용센터 취업지원2과 실무관 김진용

사계절 중 겨울이다. 겨울은 휴식의 계절이지만 누군가는 재도약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프로 야구 선수들이 휴식기인 겨울에 동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까닭은 동계 훈련을 통해 몸에 근력을 길러서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길러진 근력에 의해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패키지 담당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미래의 자기 자신을 위해 희망이라는 근력을 길러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력을 키우는 조련사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면서 취업 성공패키지의 모태인 자활사업이 시작되었고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는 그 때에도 새로 시작된 자활업무 담당이었으며 종로센터 소속으로 북부 센터에 파견까지 나가서 정신없이 자활 업무를 3개월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백지상태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었으며 파견이 끝나 복귀해서도 1년간 자활 사업담당자로 있었다. 그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참여자가 1명 있다. 해화동 달동네에 살았던 자활대상자로 서너 번 방문을 요청함에도 센터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서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실제 집주소를 확인하여 동료인 여자 선생님과 약도를 보면서 8월의 땀별을 땀으로 적셔주며 물어물어 집을 직접 찾아가서 자활사업을 설명하여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로 인해 그 대상자는 성실히 자활사업에 참여 후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탈수급을 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중단시켰다면 가능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과거 생산적 복지를 제창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자활사업이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이름을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취약계층(차상위, 차차상위,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자, 노숙인, 비주택거주자, 노숙인·부랑인, 여성가장, 건설일용)을 대상으로 영역을 넓혔다.

해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양적으로 팽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대상자는 늘어 가는데 그들을 상대하는 상담원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며 이로 인해 적정인원의 사업 참여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5인승 세단이라 가정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첫 바퀴는 본부 담당자들이며 이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사업을 기획하고 통제하는 역할이다. 두 개의 앞바퀴 중 조수석에 가까운 앞바퀴라 할 수 있다. 조수석 바퀴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험난한 길을 가게 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은 다른 바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안심시키는 등 사기진작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바퀴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여 대상자이며, 두 개의 앞바퀴 중 핸들에 가까운 바퀴로서 궁극적으로 스스로 운전을 해야 한다. 이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바퀴들은 도움을 주는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바퀴는 운전석 뒤에 있는 센터 업무 담당자이며 이들의 주된 역할은 운전석 바퀴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우면서 조수석 바퀴에게는 제대로 된 안내 역할을 하게끔 지속적으로 LIVE 중계를 하면서 민간위탁 바퀴가 운전석 바퀴를 제대로 보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네 번째 바퀴는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조수석 뒤에 있는데 비즈니스관점이 가미된 것이 특징이다. 원래 네 번째 바퀴는 세 번째 바퀴인 센터 담당자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후륜구동 한 축의 동력으로 두 번째 바퀴인 참여대상자가 최대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용도였으나 현 실정은 세 번째 바퀴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따라가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세단 자동차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어타이어(Spare Tire)가 없다. 즉 네 바퀴 중 한 바퀴라도 이상이 있다면 자동차는 멈출 것이다. 만약 도로에서 고속 주행 중 어느 한 바퀴에 이상이라도 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다. 주행을 하기 전 첫 바퀴 본부담당자는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하며

주행 중 사고에 대해 수습을 하는 자동차 보험사의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 주행의 목적지인 취업이라는 마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핸들조작이 서투른 두 번째 바퀴의 적성과 능력을 감안하여 기초 능력이 부족한 이에게 공통과정인 C코스(Common) 훈련을 추천하고 전문분야의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S코스(Specialty)를 추천하여 훈련을 받게 하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능력을 배양했다고 해서 취업이라는 마을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단계인 주차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정으로 관건은 자신감이다. 두 번째 바퀴인 참여대상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바퀴들이 마지막 모든 힘을 실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하는 등 모의면접 이후 주차에 필요한 자신감을 기른 뒤 그래도 자신감이 부족한 대상자에게는 동행면접 등을 실시하여 취업이라는 마을에 안정된 주차를 해야 한다. 만약 주차가 바르지 않으면 취업이라는 마을에 안착할 수 없고 차를 빼야하는 상황인 이직과 같은 일들로 시간낭비를 하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업무에 대해 묻는 동료 직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곤 한다. '취업 성공패키지는 피카츄다' '왜요?'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진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알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의 흐름은 조수석에 있는 바퀴가 피카츄를 진화시킨다는 것이다. 올해 취업

성공패키지 모집인원의 양은 피카츄 진화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가득 찬 주전자에 물을 계속 부을 것인가? 더 이상 양적인 확장만을 한다면 이는 가득 찬 작은 주전자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양적인 확장을 하더라도 큰 주전자로 교체하고 물을 부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비 포장된 좁은 도로를 넓혀서 패키지대상자의 시야를 확보하게 한 다음 바퀴에 한 단계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광폭타이어로 4개의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이다. 그러면 네 바퀴로 가는 자동차는 희망이라는 고속도로를 무한 질주 할 것이며 시나브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소규모 자본 창업 ‘샌드위치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퀴즈노스 서브’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가 동보 음식으로 취급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샌드위치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처럼 빠르게 먹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건강식인 샌드위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

햄버거 왕국인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샌드위치 전문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작년보다 샌드위치 전문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미국에서 최근 3년 연속 가맹점 성장률 1위인 핫 샌드위치 전문점 ‘퀴즈노스 서브’ (www.quiznos.co.kr). 미국 내에서만 7,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고, 일본 호주 영국 등 29개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브랜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에 첫 선을 보인 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활발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퀴즈노스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최상의 샌드위치를 알고 계십니까?(The best sandwich you'll ever eat)”라는 뜻. 그만큼 주 메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갓 구워진 샌드위치를 제공하며, 조리과정을 고객에게 오픈하고 있다.

퀴즈노스는 샌드위치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의 중간 형태를 지향. 빵과 고기, 야채 등 재료를 넉넉하게 사용하는 데다 사이드메뉴로 수프와 샐러드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양적으로나 영양적인 면에서나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강점은 무엇보다 간편한 패스트푸드의 특성을 살리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인다는 것. 퀴즈노스 서브의 모든 샌드위치는 일반적인 샌드위치보다 칼로리가 20% 이상 낮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여성에게 인기가 높고, 최근에는 직장인들의 한 끼 식사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가격대는 5,000~8,000원 선. 고객들은 주문 시 밀빵, 호밀빵, 로즈메리빵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고기와 야채도 직접 고를 수 있어 20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또 주문을 하면 즉석에서 갓 구운 핫 샌드위치를 제공하며 121도 온도에서 60초간 굽는 샌드위치 조리과정을 고객이 직접 볼 수도 있다.

퀴즈노스는 교육, 훈련, 전반적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도 탄탄한 편이다. 각 가맹점의 매출 및 고객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도 3주간 교육받으면 누구나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창업자는 실 평수 5평 규모의 푸드 코트 형을 비롯해 20평 규모의 패밀리 레스토랑 형까지 4가지 형태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직영점 6곳, 가맹점 3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비용은 20평 기준 점포비를 제외하면 약 1억 4천만원 선이다.

샌드위치 배달 전략

“취업을 했더라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인생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마음을 달래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일, 원가 관리, 종업원 채용 등 모든 일을 사장 마인드로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직장생활을 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책임감과 뿌듯함, 정신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이 씨의 말이다.

2007년 1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던 이형준(33, 퀴즈노스 서브 이대점, www.quiznos.co.kr)씨. 2008년에는 인천공항에 매장 한 개를 추가로 오픈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청년사업가다.

이 씨가 창업을 꿈꾸게 된 건 2005년. 1년간 떠났던 어학연수 시절, 미국 생활을 하며 미국 젊은이들이 취업 못지않게 창업의 꿈을 키우며 기업가 정신을 불태우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아이템은 어학연수시절 맛에 반해 눈여겨 봤던 브랜드인 '퀴즈노스'였다. 샌드위치 카페는 젊은 감각으로 운영하기에는 제격으로 여겨졌다.

개인적으로 모은 돈과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돈으로 이대 앞에 13평 점포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대 앞이라 당연히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처음에는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 최고의 상권답게 인근에 내로라하는 브랜드의 유사 업종들이 20여개나 포진해 있었기 때문. 하지만 이사장의 열정적인 노력과 탁월한 상품력 덕분에 매출은 빠른 속도로 향상됐다.

매장 인근에 1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등이 밀집해 있는데 이들이 영업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단 1개의 제품을 배달해주는 전략을 도입했다.

유기농 커피 외에 신선한 빵과 수프, 저칼로리 메뉴가 다양하고 웰빙제품이라는 점은 인근 여대생들에게 어필했다. 그 결과 점심과 저녁에는 이화여대의 학생과 교직원 손님이 몰리고,

오전과 오후에는 주변 의류 매장을 찾는 손님들로 항상 북새통이다.

식사시간이 아닐 때는 유기농 커피가 인기 메뉴. 이화여학과 연세여학당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손님들은 이곳의 단골 고객이 되었다. “미국에 7,000개 이상 체인점이 있는 브랜드여서 외국인들에게는 이곳의 메뉴가 고향의 음식처럼 푸근한 느낌 이죠.”

홀 판매 외에 테이크아웃과 배달 판매도 매출을 높였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은 간단한 먹거리를 들고 쇼핑하는 여성들이 많은 편인데 깔끔하고 포만감을 주는 샌드위치가 인기였고, 배달 손님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교수님들. 회의나 세미나 중 간단히 즐길 수 있어 20~30개씩 대량 주문이 많았다.

1호점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인천공항에 4평 규모 매장을 하나 더 오픈했다. 첫 매장 운영 시에는 본인이 직접 서빙을 하고 매장관리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종업원관리가 관건.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요즘처럼 일자리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2개 매장에서 여러 명의 직원을 이끄는 사장으로서 사업을 잘해야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는 이씨. “공항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무엇보다 1호점에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들이 영업을 전담해 주어 2호점을 마음놓고 낼 수 있었죠.” 현재 이 씨는 2호점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1호점 영업은 2명의 매니저가 전담한다.

이대 매장은 매니저 2명과 아르바이트생 7명이 발붙일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일 정도로 인기. “2년 뒤에는 한국 최고의 상권인 명동 알짜배기 땅에 3호점을 오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창업전략연구소 (www.changupok.com)



이경희 소장의 성공 창업전략

- 고객을 위한 배달 전략
- 매장관리가 단순해 다점포 운영이 가능
- 고객층에 맞춘 젊은 종업원 채용과 아이템 선정
- 직원에 대한 배려



시대의 건강 지킴이 '운동사'

Profile.
 이 름 : 윤형민 1981년 10월 26일생
 학 력 :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 대학원 스포츠 의학 전공 석사 수료
 경 력 : 前)야구선수 김병현 재활 및 컨디셔닝 운동사
 現)TWC 스포츠과학 연구소 부소장
 現)메리어트 호텔 휘트니스 개인 운동사
 자격증 : 운동사 자격증(체력관리, 스포츠재활, 임상운동)
 생활 체육지도자 자격증(3급 보디빌딩)

Q '운동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운동사의 주된 업무는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체력검사 및 평가 이를 토대로 한 개개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구성,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지도 및 관리, 스포츠 손상의 예방 및 관리, 재활, 컨디셔닝 등을 포함하는 운동선수 건강관리, 운동 관련 세부시설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 현장에서의 안전 지도 및 이를 포함한 모든 것의 내용을 기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진출 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앞의 언급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운동사의 주 업무라 볼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대한운동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acep.or.kr>)

Q 이 일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구요. 그러나 미래가 밝지는 않았었습니다. 부상 때문이었죠. 고교 시절 부상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재활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운동을 지도 해주시던 운동사 선생님이 대단하게 느껴졌고 세심한 배려가 다시 한 번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야구를 그만두고 그 운동사 선생님의 모습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일반 학생으로 체육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목표했던 대로 스포츠 의학 분야 및 트레이닝 방면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의 그 선생님께 감사했던 마음과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이 직업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를 통해 변화가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기쁘고 그런 희열감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그런 과정 등을 통해 저에게 고마워하시는 그분들을 볼 때면 정말 이 일을 시작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건강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게 되지만 오랜 시간 같이 운동을 하다가 보면 대화를 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됩니다. 건강과 관련된 것들뿐만 아니라 고민들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런 대화들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들이구요. 일을 하는 순간 저에게도 늘 얻어지는 교훈이 많다는 것도 이 일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Q '운동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운동사의 기본 자질은 배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운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 참여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좋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많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의 배려는 제일 우선시 되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의 마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찾고 싶은 마음,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 모두들 각기 다른 마음을 품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들이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에 대한 인식들도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제 역할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없다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지도하거나 다른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 할때도 회원님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배려는 이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요인 같습니다.

Q '운동사' 직업의 장단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어떤 일을 하던 장단점은 존재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거나 힘들 때도 있을 것이구요. 이 일의 장점은 저도 늘 건강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해봐야 느낌을 알고 잘 알려줄 수 있고 건강지식 등을 바탕으로 제게도 적용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직업의 매력이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인식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헬스장에서 만났던 운동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인식 정도라고나 할까? 물론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아직 이 일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들을 안 하신다는 것이고,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인지 다른 분야들에 비해 진출 폭이 적다는 것도 단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Q 진출 가능 분야와 고용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건강적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중 운동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선진국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과의 차이가 5~6년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 생각하고 이는 의료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련 사업은 빠질 수 없는 중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느 한 포털 사이트에서 예측했던 대로 운동사의 업무는 유망 직종으로서 그 미래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용과 관련된 산업들과도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고 지금보다 더 의학 분야 쪽과 병행되어 사업의 분야도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전망 역시 사업분야가 이처럼 넓어짐에 따라 일자리도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 제가 현장에 처음 나올 때는 진출 분야와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불과 7년 정도가 지난 요즘에는 그 업무나 역할들이 다양해졌습니다.

Q 운동사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 직업이야말로 정말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분야가 그렇듯 현실에 안주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시대가 발달하면서 운동 및 건강 관련 분야 지식정보 또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올바른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려면 우리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으로만 하던 운동 전문가의 시대는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화 되고 과학화된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 같이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입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순간 순간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운동전문가는 심리적 건강에 대해서도 편안함을 안겨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적 심리전문가는 아니어도 항상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운동대상자에게 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지도 한다면 그들의 건강은 언제나 맑음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몸과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누굴 만났든 사람들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사가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고령자 수기공모전 입상 안영호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염원하고 살다보면 어느 순간 정년을 맞이해 실업자로 전락하는데 실업이라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건강과 행복, 국가적으로는 심각한 인력난과 노인 문제 등 우리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흔히들 정년 퇴직하면 등산이나 낚시 혹은 여행이나 취미활동 등 동호인들 끼리 삼삼오오 어울려 낙천적으로 살아가거나 창업이나 동업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생활하며 지내는 것

같다. 나는 전자 보다 후자를 택해 정년 후 15일 만에 「학교당직」이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동지를 내리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간다.

혹자는 'CEO 출신이 왜? 「학교당직」이냐'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몸은 교단을 떠났으나 마음만은 학교와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고, 내 주변을 맴돌던 중 선생님과 학생들이 떠난 텅빈 학교라도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돼 후회 없이 선택한 길이다.

당직은 공휴일엔 주야로 평일은 야간 근무로 출퇴근시간이 뒤바뀌어 이제껏

익숙해진 환경에 생활의 리듬이 맞지 않아 힘든 적도 있었다. 반면 근무하다 보면 매사를 판단하고 해결해야 하기에 CEO라도 된 듯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교내외 구석구석 나의 손발이 달고 머무르는 곳이어서 그런지 출근 하면 마치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라도 온 듯 포근하고 평온한 교정을 돌아보며 아이들의 수다와 사랑을 담은 선생님의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나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내방객 및 주민들과 함께 일과를 시작한다.

근무 중 순찰하거나 CCTV 모니터를 볼 때면 흡연, 불장난, 술 마시다 괴성을 지르며 싸우는 등 청소년들의 돌출 행동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항상 나를 긴장 속에서 근무하게 만든다. 우리말에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매사를 성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거나 사건이 확대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 처리하라고 일깨워 준 말인 것 같다.

신고하거나 꾸짖기에 앞서 학생들이 나의 제자요 가족이라 생각하면서 조용히 타이르고, 편히 쉬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 협조를 요청하면 간혹 불침번도 되어주어 실보다 득될 때도 있었다. 어둠이 가고 날이 밝아오면 교내외 주변 청소와 문들을 개방해 공기를 환기시키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밀물처럼 밀려오는 아이들의 수다와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서둘러 퇴근한다.

근무 중 힘들었던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이를 극복하느라 TV 시청과 신문을 뒤적이며 지내도 보았지만 그래도 줄어들지 않은 여가시간을 어떤 취미활동을 할까? 고민 중 가급적 TV 시청을 줄이면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서삼매경에 폭 빠졌다. 그러다 내친김에 작년 6월 등단의 꿈을 안고 「서정문학」시 부문, 「계간 에세이」수필 부문 신인작가 공모전에 응모하여 환갑이 지나고 진갑을 앞둔 늦둥이로 시인과 수필가로 등단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는 말이 있듯 글을

쓰면서 그렇게 지루했던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글을 쓰느냐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와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백 사람이 한 번 읽는 글보다, 한 사람이 백 번 읽어도 매번 큰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어 작년 12월엔 「머물고 싶은 세월」, 금년 8월엔 「세상살이 엿보기」라는 시집을 출간하는 기쁨도 얻었다.

월말이면 「공무원 연금」과 「봉급」, 그리고 가끔 들어오는 원고료 등으로 저축도 하고,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자매 결연을 맺은 양로원과 고아원 그리고 불우청소년단체를 찾아 적은 성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하며,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하루하루 생활이 행복한 나날이다.

누구나 일을 하다보면 희비가 교차하기 마련이다.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듯 널려있는 담배꽂초며 온갖 쓰레기를 보거나 치울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청소라면 짜증내거나 불평보다 '남들은 무보수 즐기면서 봉사하는데, 나는 보수도 받으며 봉사'한다. 고 생각의 틀을 바꾸면 평생해 보지 못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청소한다.

돌이켜보면 현직에 있을 때 내 욕심만 채우며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승진과 출세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앞만 보며 살아 온 지난 세월이

부끄러워진다. 미로상자 속의 쥐는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잘못 살아온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남은 생이나마 서둘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권하고 싶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 일할 수 있을 때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진 것을 적게나마 베푸는 안분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하게 살려면 많은 친구를 사귀어 더 자주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활동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적은 것이나마 나누며 존재하고 있는가에 감사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차피 길지 않은 인생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 길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실패를 도전의 기회로 바꾸는 힘, 성공취업 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수료자 배은하



대학을 졸업한지도 벌써 일 년째.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걱정 없이 참석했던 졸업식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 한 마디 듣기가 어려운 취업준비생이 되어 있었다. “앞으로 뭐할 생각이니?”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었는지조차 흐릿해져버린 일상. 내 머릿속에 남은 ‘나’ 는 작년 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토익은 간신히 900점을 넘겼으며 쓸모없는 컴퓨터 자격증 몇 개를 가진 여자일 뿐이었다. 남아있는 기억은 회사에 수백 번의 지원서를 내고 면접에 열 번은 실패했었다는 정도. 그랬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실패의 기억’ 뿐이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는 억지 노력의 일환이자, 길어진 구직시간에 대한 조급함의 반영으로 지원 분야를 급히 바꿨다. 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감은 이런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넌 안 돼.” 그러던 어느 날, 워크넷을 돌아보다 우연히 ‘성취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도무지 어떤 활동인지를 가능하기 어려운 소개문에서 내 눈을 잡아 끌었던 한 가지는 바로 ‘자신감’ 이었다. 이거대! 인터넷으로 신청 버튼을 누르고 금방 전화가 왔다. 친절한 선생님의 목소리에 조금 마음이 놓였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곳이 생겼다. “서울고용센터”

프로그램 첫 날, 성취 프로그램실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홍선희 선생님과 고은진 선생님을 처음 뵈고 인사를 한 후,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만큼 두려움도 점점 커졌다. 이 낯선 사람들-나처럼 조용하고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과 어떤 활동을 하기에 내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말인가? ‘여는 마당’ 의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곳에는 ‘종전의 나’ 가 아닌 ‘여행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나’ 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특히 취업 시장에서는 전혀 느껴본 적 없는 ‘사람’ 들 간의 첫 만남이었다.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이 충실히 이어졌다. 특히 ‘도우미’ 가 되어 상대방의 장점만을 찾아내는 활동은 정말 인상 깊었다. 항상 나나 타인의 ‘단점’ 에 관심을 뒀던 내가, 활동이 계속될수록 나와 타인의 ‘좋은 점’에 집중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둘째 날부터 스스로를 알고, 나를 알리는 방법과 기술을 배웠다. 역할활동을 통해 ‘구인자’ 로서 공고를 만들고 구직자를 만나보기도 하면서, 구인자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공감했다. 동시에 지난 일 년 내내 구직자로서 가졌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고난 달변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직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구인자를 설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 또한 ‘도우미’ 로서 구인자가 얼마나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일깨워줄 수 있었다. 나의 한 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놀랍고 유쾌했다. 도우미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나의 자신감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한 주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다가올 내일을 나태한 일상으로 맞이하지 않기 위한 교육이 이어졌다.

성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나니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주변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알고 보니, 나를 믿어주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 였다. 다시 생각해보니, 나는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에서 ‘면접의 기회’ 를 요청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열 번은 다른 도전의 기회를 얻었다. 5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게 성장한 나를 남겨두고 성취 프로그램은 끝났다. 그러나 나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도전을 함께할 동행이 생겼다. 나와 함께 변화한 2012년 성취 1기 멤버들이다. 그리고 나를 토닥여줄 일기장도 하나 생겼다. 하루하루 나를 칭찬해 줄 ‘칭찬 일기장’ 이 바로 그것이다. 5일간의 값진 프로그램을 마치고 얻은 이 친구들과 나는 자신을 믿고 서로를 의지하며 성공적인 취업을 향해 달려갈 생각이다.

코너속의 코너 <애정녀>

덧붙여... 성취프로그램을 할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참 애매~합니다잉~ 어떤 분들이 성취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애정녀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내가 10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다! 싶으면 꼭 참여하는 겁니다~ 100번 넘게 실패했는데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꼭 할 필요 없어요~

둘째, 내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헛갈린다! 싶어도 꼭 참여 하세요~ 프로그램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옵니다~

셋째, 예전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프로그램 신청합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직장이나 전에 다녔던 직장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해당사항 없는 거예요~

이상, 애정녀를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멋진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취(成就)프로그램이란?

구직자가 실직기간 중에 경험하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악화를 예방하고 강한 재취업 의욕을 부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며, 취업정보의 탐색 및 인성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 직장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인 만족도를 증진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성취(成就)는 '성(成功)적인 취(就)업을 돕는'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목적한대로 일을 이룬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진행방법

- * 2-15명의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1회 5일간 6시간씩 진행
- * 진행자와 참가자간의 밀접한 의식 교류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동하고 도전하라!

취업희망프로그램 수료자 임경숙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취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기는 했지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을 받다보니 어느새 1년여 세월이 지나 버렸다.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구직활동을 해보았지만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과연 취직이 가능하거나 할까?',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어지던 즈음 지인의 소개로 동부고용센터 취업희망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드디어 1월 17일, 나에게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큰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5층 집단상담실에 도착하니 선생님들과 참가자 몇 사람이 벌써 와 있었다.

'나를 만나는 날!' 이라는 타이틀로 첫 시간이 시작되었고 선생님께서는 별칭을 각자 지어보라고 했다. 처음 만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하셨는지 모두 일어나서 참가자들끼리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적으라며 상품을 걸으셨다. 적극적인 참가자들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초 스피드를 자랑하는 분께서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미션을 수행하여 모두들 놀라며 큰소리로 웃다가 보니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져 버렸다. 이어서 '자기소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짐짓 걱정을 하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 선생님께서는 또 한 번 재치를 발휘하셨다. 그것은 바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였다. 자기 소개 방법은 우선 둘씩 짝을 지어 상대방에게 자기를 소개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잘 듣고 자신의 짝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모두들 편안하고 어색하지 않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자기소개는 처음이라서 새롭고 흥미로웠다.

첫째 날의 마지막 시간은 예고그림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을 파악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었다. 나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실천사항을 적어놓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치며 자신을 반성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둘째 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실습을 하였다. '정글에 불시착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별로 필요물품을 확보하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머리가 옥신 옥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팀원들끼리의 의견조율도 쉽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주장을 펼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 말 끊기, 남의 말 안 듣기, 상대방 비난하기, 설득력 없는 얘기하기, 좋지 않은 표정 짓기 등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태도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역할극을 통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자신의 감정과 바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나 전달법' 을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치와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든지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다' 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하루였다.

셋째 날은 '직업을 만나는 날' 이었다. 나의 흥미, 관심사, 보유능력, 성격의 장점, 경력 및 경험 사항을 토대로 나의 특성을 정리해보고 직업가치목록을 정한 후 직업선택을 위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지도에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나에게 맞는 직업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걸 보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어서 둘째 날 실시했던 '직업 선호도검사' 결과를 토대로 4개의 유형으로 팀을 나누어 같은 유형들끼리 자신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같은 유형들끼리의 작업이 좀 더 즐겁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희망직업' 과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직업' 에 대해 알아보며 지금까지 직업 선택을 할 때 내 생각만 중요했지 남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까지 생각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색다른 경험이었다. 셋째 날의 마지막엔 "직업을 갖기엔 늦었어!" 라는 생각을 나이에 불문하고 모두들 하게 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 행동하고 도전하라!"고 하시며 용기를 주셨는데 마치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보게 되었다.

아쉬운 마지막 날이 왔다.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좋은 음악과 함께 꿈꾸며 직업에 관한 정보검색방법과 유용한 취업 관련 사이트를 알려 주셨다. 이어서 장기적인 진로 목표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세우면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 모두가 서로에게 칭찬을 건네며 응원하는 시간을 끝으로 4일간의 여정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았지만 이처럼 저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번 참가로 인해 스스로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긴장감과 즐거움이 함께 했던 취업희망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 큰 행운이었고 무엇보다 10대에서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 마음이 되어 취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희망을 보듬어 줄 수 있었던 게 제일 의미 있었다고 생각된다.

2012년 새해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 희망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프로그램 참여 후기를 올려보았습니다. 끝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참가자들께 정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정수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좋은 기회를 주신 동부고용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취업희망프로그램이란?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찾도록 하여 자신감 회복과 취업 희망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인간관계 향상과 취업 및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 * 참가대상 :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접수상담 후 참가가능)
- * 참가인원 : 8~12명 내외
- * 참여기간 : 4일 과정(중식 및 간식 제공)
- * 참가신청 :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 메일, 워크넷 등)

마음 가다듬기



♣ 도입과정

내담자는 만 27세의 전문대 전기공학과를 전공한 전직 구직자로 지난번 회사에서 일처리가 느려 담당 팀장과 상담한 결과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와 함께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 신청을 함. 내담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 듯 했고, 지난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자신감 부족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경향이 있었음.

♣ 1차 상담

1회차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심층상담에 신청하게 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직 전 사업장에서 느린 행동과 업무능력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직한 후 느끼고 있는 답답함과 불안함에 대해 상담함. 내담자에게는 일단 심층상담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선 성격 검사를 실시함.

♣ 2차 상담

내담자의 성격검사 결과(ENFP)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면서 세부적으로 해당 유형에 대한 특이사항 중 개발해야 될 사항을 설명해 줌. 내담자는 해석 결과를 듣고 자신이 그 동안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나 이전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들었던 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상황들을 이해함. 우선 산만한 성격의 내담자를 위해 하루 일과를 점검하기로 하고 '자기관리 나의 일주일' 활동지와 '직업선호검사 L형과 가치관검사' 과제를 내줌.

♣ 3차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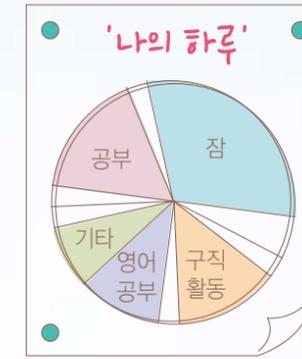
'자기관리 나의 일주일' 활동지를 확인한 결과 내담자는 하루에 외출이 두 번 정도이며 취침시간이 매우 늦고 기상시간이 오전 10시로 합리적인 시간조절이 안 되어 있었음.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는 성격유형과 함께 거의 같은 유형으로 성격 하위요인인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모두 매우 낮거나 높은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내담자의 생활검사 결과는 대인물 기피할 정도로 대인관계지향이 매우 낮고 자존감마저 매우 낮은 점수가 나타나 우선 자존감 회복을 위해 취업희망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함.

♣ 4차 상담

취업희망프로그램 참여 후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는 조금은 얼굴이 밝아지고, 취업희망프로그램 참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였고, 힘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좋았고 사람들과 동아리 모임을 가질 수도 있어서 좋았다고 함. 정서적 불안감과 산만함으로 직업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다른 직업을 같이 병행해 보고자 요가 등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작업들을 추천함.

♣ 5, 6차 상담

내담자는 불안감과 산만함을 조절하기 위해 내 준 과제인 요가 운동을 하기 위해 구민센터에 등록을 하여 참가하고 있었음. 내담자 본인에 대한 자기 이해는 끝났지만, 매우 산만하여 상담을



내담자 사항

- 성명 : ○○○
- 학력 : 전문대 전기공학과 수료
- 나이 : 만 25세
- 구직자 유형 : 경력단절 여성
- 결혼여부 : 결혼

위해 만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곳의 새로운 직종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함.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들을 찾아보기로 하고 '경력자 이직 시 자기 분석', '자신에 맞는 직업 찾아 작성하기'를 과제로 내 줌.

♣ 7, 8차 상담

매주 작성한 '나의 일주일'을 살펴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계획성 있게 활동하는 것으로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담자에게 시간관리 계획을 세워서 좋아하는 기타 연습, 요가,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줌. 어느 정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 지향적이며 관리적이지 않은 그런 직업이나 훈련'을 찾아 지원하자고 의견을 물어보니 내담자는 웹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함. 내일배움카드제 신청 절차와 훈련기관에 접수절차를 알려주고 웹 디자인 훈련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함.

♣ 종합

내담자는 정성과 흥미를 알아보지 않고 선택한 전공과 직업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 무능력자로 불려지고, 자신의 소심하고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 4차원 등의 별칭으로 이전 직장 에서 매우 상처를 받아 자신감이 저하되어 심층상담을 찾는 사례임. 상담하는 동안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일보다는 현재 구직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독려하고 이해해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한 후 심리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성격과 흥미 등을 알게 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금번 상담과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의 정신적 불안감과 산만함에 대한 부분은 심리치료 등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심층상담이란?

1:1 개인별 맞춤형상담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의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인별로 취업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시켜 취업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 정년 없는 사업장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시행 -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반영** 해서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 * 업종별지원기준율: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
- **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 제조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운수업 5.7

정부는 10일(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고령자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고령자고용 관련 지원금은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되었다. (일자리현장지원단 기업애로사항 파악 결과)

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되어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 * 감시·단속적 근로자 : ▲ 경비원, 수위, 물품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 ▲ 보일러기사, 아파트 전기기사 등 평소 업무는 한가하나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해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

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해졌고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천여 명에 해당하는 45억 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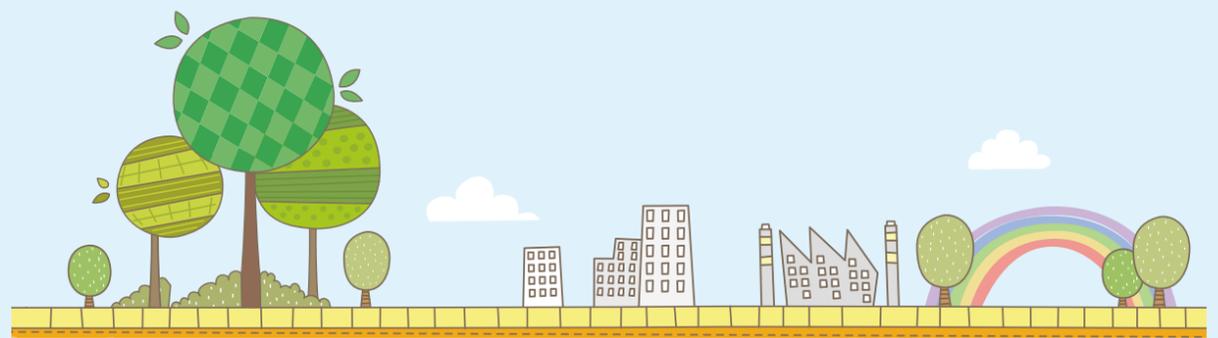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1/4분기 해당 분은 4월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새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고령자들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운영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 -



1.11.(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지역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금년 2월부터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본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이외에 다각적인 가입촉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범사업의 목적은 보험료 지원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고 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여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정립,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①적용대상 근로자 규모 등의 적정성 ②공단 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③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과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의지가 높은 자치단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 시범사업 지역: 서울 동대문구,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주요 내용

- ▶ 대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
- ▶ 지원수준
 - 월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지원
 -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지원
 - ex) 월 보수 104만원: 근로자 연간 31만원(월 26,260원), 사업주 연간 33만원(월 27,560원)
 - 월 보수 124만원: 근로자 연간 25만원(월 20,873원), 사업주 연간 26만원(월 21,907원)
- ▶ 지원방식: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 완납 시 지원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은 것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걸어서 떠나는 서울여행

- 전통문화 예술의 거리 인사동·운현궁 -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17개의 도보관광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공식관광정보 사이트(<http://www.visitseoul.net>)를 통해 예약 신청을 하면 해설사와 함께 서울지역 명소의 유래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으며 여행할 수 있다.

17개의 도보관광 코스 중 눈에 띄는 것은 인사동·운현궁을 중심으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전통문화 예술의 거리 여행이다. 인사동 코스는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운현궁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말부터 골동품 상점과 전통찻집, 한국대표기념품 샵 등이 밀집해 있는 인사동을 돌아보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 코스: 운현궁 → 천도교 중앙대교당 → 민가다현 → 경인미술관 → 쌈지길 → 조계사 → 보신각

운현궁



서울특별시 사적 제257, 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잠저(潛邸,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았던 곳)이며, 흥선대원군의 사저이다. 대원군의 정치활동의 근거지로서 유서 깊은 곳이다.

휴 일: 월요일
전화번호: 02-766-9090
홈페이지: <http://www.unhyeongung.or.kr>

천도교 중앙대교당



경운동에 자리한 천도교의 총본산 교당이다. 1918년 12월 착공해 1921년 2월 완공했다. 손병희의 발의로 지어졌으며 빈 분리파(Vienna Secession)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은 서울의 근대 건축물 가운데 두드러진 외관을 자랑한다. 바로크 양식의 4층 탑신을 가지는 T자형 건축물이다.

민가다현



민가다현은 1900년대 초 명성황후의 친척 민익두 대감의 저택을 건축가 박길용이 개조한 최초의 개량 한옥으로 역사적 의미가 큰 건축물이다. 서울시 민속자료 제15호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주)와인나라가 운영하는 와인 레스토랑이다. 귀족적인 정취와 고즈넉한 아름다움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외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명소다. 또한 김주혁, 한예진이 출연한 드라마 <떼루아>의 실제 모델이며 촬영지이기도 하다.

전화번호: 02-733-2966
홈페이지: <http://www.minsclub.co.kr>



경인미술관



1983년 개관한 경인미술관은 예술인의 문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이름 나 있다. 약 1,650제곱미터의 대지에 제1, 2, 3, 5전시실과 아틀리에, 야외 전시장,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 무대와 스크린, 전통 찻집(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휴 일: 신정, 구정, 추석
관람시간: 10:00~18:00
홈페이지: <http://www.kyunginart.co.kr>

쌈지길



2004년 인사동에 문을 연 새로운 전통 문화 쇼핑 공간이다. 인사동의 예스러운 모습을 탈피하면서도 정감 어린 정서만은 잘 녹여냈다. 가운데 마당을 빙 둘러 스프링처럼 상점을 따라 이어지는 길이 그 사례로, 이는 인사동의 골목길을 표현한다. 계단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쌈지길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터에 자리하던 12개의 전통 공방과 새로이 입주한 젊은 공방들도 조화롭게 자리한다. 또한 북카페와 갤러리, 전통 체험 공간 등은 쌈지길에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고 있다.

조계사



조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의 총본산으로 한국 불교의 중심지다. 1910년 승려 한용운, 이화광 등이 각황사(覺皇寺)라 부른 데서 유래됐고, 일제강점기에는 태고사(太古寺)로 불리다가 1954년 조계사로 개칭됐다. 대웅전 규모가 웅장할 뿐 아니라 문살의 조각이 특이한 것으로 유명하며, 천연기념물 제9호인 서울 수송동의 백송(白松)이 경내에 있다. 도심 속에서 한국 불교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찰 명소다.

전화번호: 02-732-2115
홈페이지: <http://www.jogyesa.kr>

보신각



보신각은 오전 4시경에 33번, 오후 10시경에 28번 울려 도성의 문을 여닫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데 쓰인 보물 제2호 보신각 종이 있던 자리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병화와 재화로 인하여 몸통에 균열이 생긴 이후 타종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지금 보신각에 있는 종은 국민의 성금으로 새로 주조한 종으로 매일 정오에 일반 시민이 타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타종심사위원회가 참가자를 선정한다.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아기는 통통해도 크면 빠진다?

영유아 비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유아기에 아기가 유난히 체중이 많이 나가고 통통해 보이는 경우에 대개 “젖살은 나중에 다 빠진다.” 고 하여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드문 경우에는 프라더-윌리(Prader-Willi)증후군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나 유전 질환으로 알려진 질환의 증상으로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피할 일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영양결핍의 문제가 소아 보건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였으나, 현재는 사회경제적인 발달로 인하여 소아 청소년기의 비만이 언론의 주요한 관심거리가 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특히, “웰빙”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소아 연령에서부터 비만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 보호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외래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소아비만의 유병률은 과거 18년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약 3~6배 증가하였고, 중·고등학생 기준으로 남아에서는 15~20%, 여아에서는 10~15% 정도로 나타나 있는 상태이다. 비만이 문제되는 것은 단순히 체형적인 비만뿐만 아니라 소아 연령에서부터 지방간, 고지혈증, 당부하내성 이상, 소아당뇨병, 수면무호흡 증후군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만에 의한 대사성 합병증을 “대사증후군”이라 하며, 이 대사증후군은 중풍,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각종 성인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아 비만의 60~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만을 영유아 때부터 적극적으로 조절하면 어떨까?

유감스럽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한 영유아 비만의 기준이나, 치료 방침이 정해져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소아비만의 진단은 비만도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등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며, 피부두께와 신장별 체중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학동기 연령 이상에서 잘 부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유아기 아동에게는 명확한 비만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이는 영유아기의 키와 체중 변화는 매우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이며, 선부른 진단과 치료는 정상적인 아기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영유아 시기에는 비만이라고 하여 적극적인 치료 개념을 가지고 수유량 조절 등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돌이 경과하기 전에 날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드문 경우에는 프라더-윌리

(Prader-Willi)증후군과 같은 내분비 질환이나 유전 질환으로 알려진 질환의 증상으로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방치하는 것은 피할 일이다.

최근 소아비만에 관한 연구 동향을 보면, 소아청소년기의 비만 위험 인자를 영유아기 시기에서부터 찾으려는 경향이 많다. 일단 학계에 일치된 견해는 모유 수유를 꾸준히 한 아이가 비만 위험도가 분명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다기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출생부터 생후 4개월까지의 급속한 체중 증가 속도를 보이는 경우에 7세경에 소아비만으로 이행할 위험도가 1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성장 양상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즉, 백일 사진을 찍을 때에 보통 아기들 보다 너무 통통하거나, 정상 성장 곡선에서 벗어난 과체중인 경우에는 돌 때에 살이 많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소아비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식사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균형 잡히게 유도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젖살이 너무 통통할 경우라도 생후 6개월 이전의 젖살이 문제이지, 6개월 이후의 젖살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아이가 과도한 탐식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도 나중에 비만에 빠질 수 있다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나 어린이 본인의 기질적, 성격적 성향에 따라서 비만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소아 비만의 치료를 가족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제대학교 백병원보, <http://www.paik.ac.kr>]



12월의 서울 지역 노동시장 동향



* 고용동향 총괄

전국 15세 이상 인구는 41,2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1천명 (1.2%) 증가함
 경제활동인구는 24,8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2천명 (1.4%) 증가함
 취업자수는 24,12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1천명 (1.9%) 증가함
 실업자수는 75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천명 (11.6%) 감소함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함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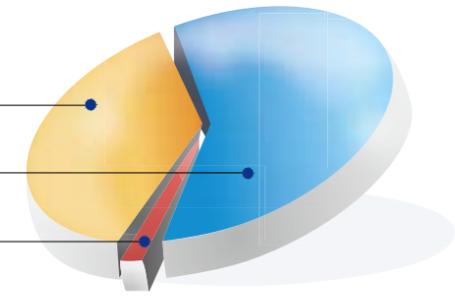
서울 15세 이상 인구는 8,37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명 (0.4%) 감소함
 경제활동인구는 5,1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천명 (0.5%) 증가함
 취업자수는 4,97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 (0.5%) 증가함
 실업자수는 2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0.3%) 감소함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함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전국〉 15세 이상 인구 41,273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394천명 (40%)

취업자 24,125천명 (58%)

실업자 754천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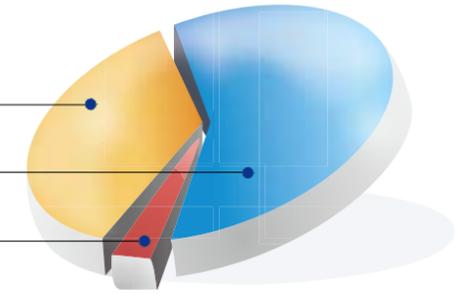


〈서울〉 15세 이상 인구 8,374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3,181천명 (38%)

취업자 4,971천명 (59%)

실업자 223천명 (3%)



- ①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② 실업자: 4주 기준 실업자
- ③ 고용률 (%) = (취업자 ÷ 15세 이상인구) × 100
- ④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 ⑤ 통계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비 수치가 발표된 자료의 차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취업자 동향

2011년 12월 서울의 취업자수는 497만 1천명 (전년동월대비: 27천명)으로 감소

산업별

- 제조업은 51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 (0.8%) 감소함
- 건설업은 37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명 (3.1%) 감소함
-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3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 (1.6%)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1,93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 (0.3%) 감소함
-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8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 (1.7%) 증가함



종사상 지위별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는 1,1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천명 (3.8%) 감소함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2,31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0천명 (5.9%) 증가함
-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직은 1,14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천명 (4.0%) 감소함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은 4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명 (14.5%) 감소함



연령대별

- 청년층 (15·29세)은 94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명 (1.7%) 감소함
- 30대는 1,2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0.6%) 감소함
- 40대는 1,3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 (0.8%) 감소함
- 50대는 1,01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60세 이상은 4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1.4%) 증가함



* 실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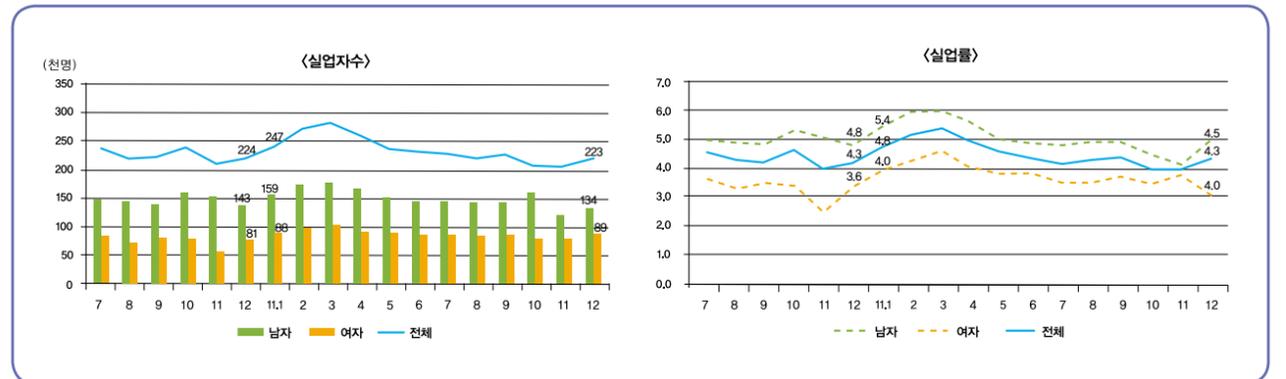
2011년 12월 서울의 실업자수는 223천명 (전년동월대비: 1천명)으로 감소

▶ 서울 실업자수는 22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224천명에 비해 0.3% 감소

- 성별 실업자수는 남자 134천명 (60.1%), 여자 89천명 (39.9%)로 나타남
- 전국 실업자 754천명의 29.6% 차지

▶ 서울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달의 4.3%와 동일

- 성별 실업률은 남자 4.5%, 여자 4.0%로 나타남
- 전국 실업률 3.0% 보다 1.3%p 높게 나타남



* 기타 경제지표

- ▶ 2011년 12월의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함
- ▶ 2011년 11월 서울시 광공업생산지수는 93.8(잠정치)으로 전년동월대비 9.1% 하락함
- ▶ 11월 중 서울시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 7,968억원 (잠정치)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증가함, 이 중 백화점 판매액은 11,310억원으로 2.4% 증가하였으며,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6,659억원으로 1.6% 증가함
- ▶ 11월 중 서울시 신설법인은 1,804개소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3개소 감소함, 부도법인은 53개소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개소 증가함

2월의 취업캘린더



서울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 단기집단상담 - 행복한 대화 이끌기
6 * 성취프로그램	7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 워크넷과 함께하는 취업예감	8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9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10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13 * 캠프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어려움극복하기	14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 워크넷과 함께하는 취업예감	15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대인관계능력향상	16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17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20 * 성취프로그램	21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 워크넷과 함께하는 취업예감	22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23	24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27 * 단기집단상담 - 면접기술	28 * 워크넷과 함께하는 취업예감	29 * 단기집단상담 - 대인관계능력향상		

서울서초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 단기집단상담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2 * 단기특강 - 나의 흥미 알아보기	3
6 * 성취프로그램	7 * 성취프로그램	8 * 성취프로그램	9 * 성취프로그램	10 * 성취프로그램
13	14 * 단기특강 - 국민연금으로 노후설계하기	15	16 * 단기집단상담 - 면접기술 습득하기	17
20 * 단기특강 - 고용차별 이해하기	21 * 취업희망프로그램	22 * 취업희망프로그램	23 * 취업희망프로그램	24 * 취업희망프로그램
27 * 단기특강 - 금융상품을 활용한 재무설계	28	29 * 단기집단상담 - 자기개발능력향상		

* 장소: 서초고용센터 지하 1층 단기특강 프로그램실
* 단기특강 (월·목): (오후 1시 30분)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4시)

서울강남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6	7	8	9 * 단기특강 - 고용차별 이해하기	10
13 * 성취프로그램	14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15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16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17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20	21 * 단기집단상담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22	23 * 단기특강 -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24 * 단기특강 - 노테크로 시작하는 노후설계
27	28	29		

서울동부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 단기특강 - 직장내 성공적인 대화법 및 의사소통능력향상	3
6 * 성취프로그램	7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8 * 취업희망프로그램	9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특강 - 면접이미지메이킹	10 * 취업희망프로그램
13 * 캠프프로그램	14 * 캠프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멋진 이력서 작성하기	15 * 캠프프로그램	16 * 캠프프로그램 * 단기특강 - 워크넷을 이용한 취업정보찾기	17 * 캠프프로그램
20	21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전략세우기	22 * 취업희망프로그램	23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특강 - 성공창업특강	24 * 취업희망프로그램
27	28 * 단기집단상담 - 면접기술습득하기	29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성취, 취업희망, 캠프프로그램 (09:30~16:30, 9층 프로그램진행실)
* 단기집단 (14:00~17:00, 10층 대화실)
* 단기특강 (15:00~16:30, 10층 대화실)
* 신청문의: 02-3468-4831

* 단기특강 장소: 5층 성취프로그램실 (강의 시작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므로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배움카드제 설명회 장소: 5층 내일배움카드설명회장 (TEL: 2142-8936~8940)
*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이므로 2142-8474, 8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의 취업캘린더



서울서부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 단기집단상담 - 행복한 대화 이끌기
* 캠프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6 * 캠프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7 * 캠프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8 * 캠프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9 * 캠프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13 * 취업희망프로그램	14 * 취업희망프로그램	15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16 * 취업희망프로그램	17
20 * 캠프프로그램	21 * 캠프프로그램	22 * 캠프프로그램	23 * 캠프프로그램	24
27	28	29 * 단기집단상담 - 나를 이해하기		

* 장소: 서부고용센터 5층 집단상담프로그램실
 * 운영 시간: 성취프로그램, CAP+ 프로그램: 09:30~16:30, 취업희망프로그램: 10:00~17:00
 * 문의: 서부고용센터 직업진로지도팀 (☎ 02-2077-6093, 6196)

서울남부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 단기집단상담 - 행복한 대화 이끌기
* 취업희망프로그램 * 캠프프로그램	6 * 취업희망프로그램 * 캠프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7 * 취업희망프로그램 * 캠프프로그램	8 * 취업희망프로그램 * 캠프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9 * 캠프프로그램
13 * 성취프로그램	14 * 성취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전략 세우기	15 * 성취프로그램	16 * 성취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행복한 대화 이끌기	17 * 성취프로그램
20 * 취업희망프로그램	21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22 * 취업희망프로그램	23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24
27 * 이주결혼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	28 * 이주결혼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전략 세우기	29 * 이주결혼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		

* 문의: 직업진로지도팀 (02-2639-2353)

서울북부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30 * 올라프로그램	1/31 * 취업희망프로그램 * 올라프로그램	2/1 * 취업희망프로그램 * 올라프로그램	2 * 취업희망프로그램 * 올라프로그램
	6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7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8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취업전략세우기	9 * 캠프프로그램 * 성실프로그램
	13	14 * 취업희망프로그램	15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면접기술습득하기	16 * 취업희망프로그램
	20 * 성취프로그램	21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22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 단기집단상담 - 행복한 대화 이끌기	23 * 성취프로그램 * 취업희망프로그램
	27	28	29 * 단기집단상담 - 멋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 집단상담프로그램(성취, 성실, CAP, 취업희망, 올라) 9:30~16:30 9층 프로그램실, 사전신청 (실업급여 수급자는 프로그램 참여시 최대 4주간 구직활동으로 인정 - 수료증 발급)
 * 사전신청문의: 02-2171-1865~8 (9층 진로지도팀)

서울관악고용센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	2	3
	6	7	8	9
	13 * 캠프프로그램	14 * 캠프프로그램	15 * 캠프프로그램	16 * 캠프프로그램
	20 * 취업희망프로그램	21 * 취업희망프로그램	22 * 취업희망프로그램	23 * 취업희망프로그램
	27	28	29	

* 문의: 센터내 3층 취업지도팀 (02-3282-9338~9)



Photo News



01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행사 개최’

서울고용센터는 1월 2일~4일(3일간) 민간취업지원기관인 잡코리아의 이동식 무료사진촬영 서비스인 ‘좋은 일 사진관’ 사업과 연계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 무료로 이력서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02

2012년 시무식 개최

서울강남고용지청은 1월 2일 임진년 새해를 맞아 2012년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03

2011년 정부포상 전수 및 표창장 수여식 개최

서울동부지청은 12월 30일 ‘2011년 정부포상 전수 및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하여 고용노동행정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04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수여식 및 대상기관 간담회 개최

서울서부고용센터는 2012년 1월 3일 ‘2011년도 5차, 6차 신규 사회적기업 인증수여식 및 대상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규 사회적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부정수급 예방 등 윤리경영을 당부하였다.



05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말 화합행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2011년 12월 28일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하여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조직몰입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단체 영화 관람과 식사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06

직원 휴식 공간을 위한 옥상정원 ‘안(安)뜨레’ 개장

2011년 12월 22일 서울북부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옥상에 직원들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 옥상 정원 ‘안뜨레’를 개장하였다.

Puzzle ANAGRAM



철자들을 가로 또는 세로로 읽었을 때, 봄과 관련된 단어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순서대로 다시 배치하시오, 철자를 올바르게 배치한 후, 화살표가 가리키는 철자를 순서에 관계없이 정답 칸에 적어 놓은 다음, 이를 다시 순서대로 배치하면 봄과 관련된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작 → C | 2 | 2 | 2 | 2 | 2 | 2

시작 ↓

시작 ↓

정답

「일과 쉼터」에 제공하는 퍼즐문제는 퍼즐랜드(www.puzzleland.co.kr)에서 제공합니다.

지난호 정답

제기차기

지난호 퍼즐 당첨자 (1명)

-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정답과 함께 「일과 쉼터」에 대한 의견을 매월 18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기념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100-760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3층 서울고용센터 기획총괄과

전국 어디서나
1899-4001

가까운 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연결됩니다.

근로자 교육훈련도 시키고, 훈련비도 지원받자!

2012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수행기관 변경

- 변경일자 : '12.1.1.
- 변경사항 : 훈련과정 인정 및 비용지원 업무 수행기관 변경

고용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 '12.1.1일부터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훈련실시신고, 훈련수료자 보고,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는 지역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안내

지부·지사	관할구역	지부·지사	관할구역	지부·지사	관할구역
서울지역본부(마포)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성남지사(성남)	경기도 성남시·이천시·여주군·광주시·하남시·양평군	광주지역본부(광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서울동부지사(광진)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강남구	부산지역본부(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전북지사(전주) *군산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정읍시·남원시·순창군·군산시·부안군·고창군
서울남부지사(영등포)	서울특별시 서초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부산남부지사(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전남지사(순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보성군·고흥군
강원지사(춘천)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횡성군·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의 가평군	경남지사(창원) *진주고용센터/통영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거창군·합천군·함천군·하동군·남해군·창원시·합안군·의령군·창녕군·통영시·고성군·거제시	목포지사(목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무안군·영암군·진도군·강진군·해남군·원도군·장흥군
강릉지사(강릉)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태백시·삼척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울산지사(울산)	울산광역시	대전지역본부(대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공주시·논산시·계룡시·연기군
경인지역본부(인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대구지역본부(대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석적면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 군위군·경산시·영천시·청도군	충북지사(청주) *충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괴산군·보은군·충청군·옥천군·영동군·충주시·음성군·제천시·단양군
경기지사(수원)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시흥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광명시·수원시·화성시·용인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북지사(안동)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주시·봉화군·문경시·상주시·구미시·칠곡군 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김천시	충남지사(천안)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서산시·태안군·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군
경기북부지사(의정부)	경기도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구리시·남양주시·포천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포항지사(포항)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경주시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 세부 위치 : <http://www.hrdkorea.or.kr/5/4/2>
- * 원주, 진주, 통영, 구미, 평택, 군산, 충주, 보령 등 8개 고용센터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가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 * 제주지역은 변함없이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